

『발달장애예술가들의 상황과 이야기』

(서울장애인예술창작센터 장애예술기획전 “상황과 이야기” 리뷰)

『발달장애예술가들의 상황과 이야기』

(서울장애인예술창작센터 장애예술기획전 “상황과 이야기”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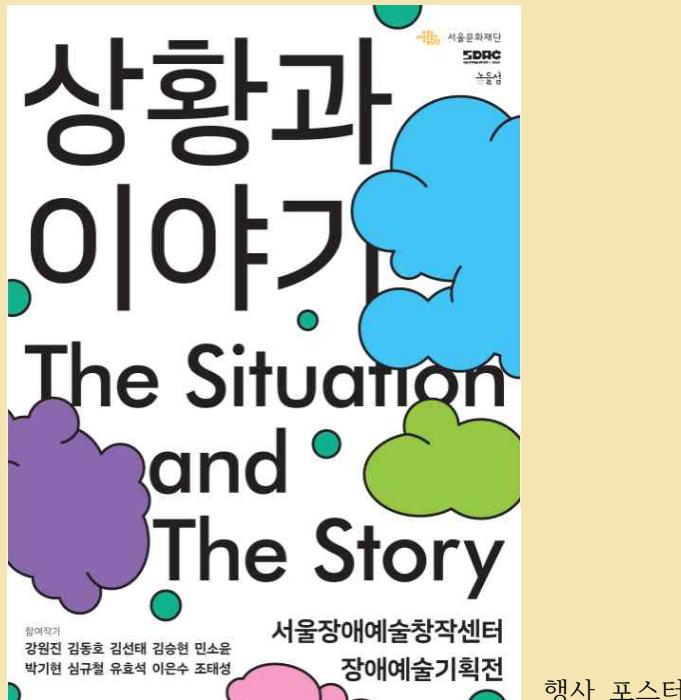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지난 7월 3일에, 요즘 소위 핫플레이스인 노들섬의 <노들갤러리 2관>에서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인예술창작센터가 주관하는 장애예술기획전 <상황과 이야기>가 개막되었습니다. 올해는 발달장애미술가 육성사업 <우리 시각>의 2024년 참여작가 10명의 작품을 재미있게 보여주는 전시로 구성되었습니다. 발달장애 예술가의 마음을 <직설화법>으로 말하는 듯한 시원함을 주는 작품들, 전시개막 행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 그리고 문화정책 차원에서 함께 공유할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장애의 유형과 정책적 요구가 다양한 만큼, “섣불리 일반화하지 말자”고 강조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서로 다른 상황과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목 차 >

- | | |
|----|-----------------------------------|
| 0. | 서울장애인예술창작센터 장애예술기획전 “상황과 이야기” |
| 1. | 그림으로 읽은 이야기 _ 작가의 속 마음 |
| 2. | 귀 기울이니 들린 이야기 _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창작과 생활 |
| 3. | 공유해야 할 상황 _ 장애예술의 현실 |
| 4. | 정책이 준비해야 할 것 _ 섣불리 일반화하지 않는 제도화 |

0.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장애예술기획전 “상황과 이야기”



지난 7월 3일에, 요즘 소위 핫플레이스인 노들섬의 <노들갤러리 2관>에서 장애예술기획전 <상황과 이야기>가 열렸습니다. 장애예술기획전은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발달장애미술가 육성사업 <우리 시각>의 2024년 참여작가 10명의 작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리플렛에 쓰인 “장애예술”이란 말은 아직 그 존재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말이지만, 전시는 독특한 시각과 색감을 보여주는 작가들을 위한 “기획전”이었습니다. 전시를 총괄한 김유진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매니저는 **“장애가 부각되기 보다는...작품들이 재미있게 다가가게 전시장을 구성하는 데 힘썼다”**고 말했습니다. 발달장애예술가의 마음을 <직설화법>으로 말하는 듯한 시원함을 주는 작품들과 전시개막 행사 현장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 문화정책 차원에서 함께 공유할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1. 그림으로 읽은 이야기 _ 작가의 속 마음

이번 전시는 “발달장애 예술가 10인이 낯선 이에게 그림을 통해 전하는 자전적 이야기”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자전적 글쓰기를 하려면 서술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말한 미국의 저널리스트 비비안 고닉(Vivian Gornick)이 그의 저서 “상황과 이야기(The Situation and the Story)”에서 밝힌 글쓰기 관점을 전시 제목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작가들이 만난 상황과 이야기를 <나와 함께 한>, <현실과 상상의 경계에서>, <아주 멋진 곳>,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4개 섹션으로 나누어 들려줍니다. “글로 쓴 문학 작품처럼 이미지라는 언어로 만들어진 작품의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들여다보기 어려운 작가들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 주는 비밀의 열쇠가 되어줄 것”(박경린 전시 큐레이터의 글 발췌)이라는 전시 안내 글처럼, 직접 말을 건네기 조심스러운 작가들과 대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시장을 둘러봅니다.



김동호 作 <하마>
(이미지 출처 : 전시 홈페이지)



조태성 作 <아프리카의 황제>
(이미지 출처 : 전시 홈페이지)



유효석 作 <부끄러운 늑대>
(이미지 출처 : 전시 홈페이지)

전시장 가운데 김동호 작가의 <하마>와 <펭귄 가족>이 캔버스 평면에서 튀어나와 관객을 맞이합니다. 그 옆에서 눈 길을 끄는 조태성 작가의 <아프리카의 황제>는 다정하게 눈을 마주치는 사자입니다. 자세히 보면 사자의 갈기 안에 다양한 동물들이 담겨있는 것이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사자는 풍성하고 부드러운 갈기로 그들을 모두 품고 있는 듯, 따뜻한 황제의 풍모를 보여줍니다. 옆에 나란히 걸린 <늑대의 혼>에서 앞을 응시하는 늑대의 눈동자에서도, 세상을 향한 작가의 호기심 많고 따뜻한 마음이 보입니다. 유효석 작가의 <부끄러운 늑대>도

결국 개막식에 온 관객들 앞에서 수줍게 작품 설명을 끝내지 못하는 작가와 너무도 닮았습니다. 전시 설명 글처럼, 똑바로 끝맺지 못하는 작가들의 말과는 사뭇 다르게 선명한 이미지들이 작가의 마음 속 이야기를 열어보는 열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자기 작품을 보고 있는 저한테 먼저 다가와서 “내가 직접 만든 캐릭터들이다. 애니메이션에는 없는 장면을 상상하여 그린 것이다”고 열심히 설명해 주는 심규철 작가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굳이 조심스럽게 다른 열쇠를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마음만 있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심규철 作 <대마왕과 전설의 군주들>
(이미지 출처 : 전시 홈페이지)



김승현 作 <산호 숲의 오후>
(이미지 출처 : 전시 홈페이지)

수족관 방문 경험을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세계, 유토피아로 표현했다”는 김승현 작가의 작품들은 <현실과 상상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무지개를 여행의 발랄함을 나타내고, 아름다움과 평안함을 상징하는 매개체로 사용했다”는 이은수 작가의 작품들과,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릿지, 궁궐의 밤과 낮을キャン버스 위아래, 좌우로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과감하게 배치한 박기현 작가의 작품은, <아주 멋진 곳>을 가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선명하게 이야기 해줍니다.



이은수 作 <눈썰매장 간판>
(이미지 출처 : 전시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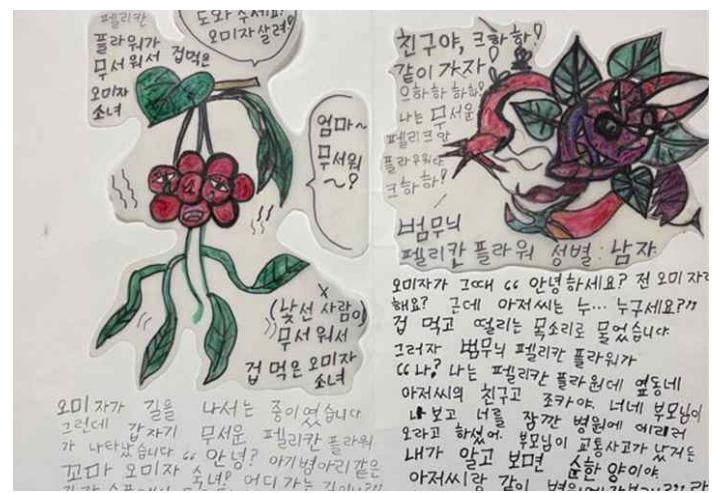
박기현 作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릿지>
(이미지 출처 : 전시 홈페이지)

개인적으로는 현대 미술 전시장에서 작가들이 “각자 선택한 맥락과 환경, 그들이 경험한 감정과 사실”을 엮어서 표현한 이미지를 쉽게 해독할 수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손에 든 전시 소개 글과 벽에 걸린 작품을 번갈아 보면서 그 간극을 좁혀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미술관 안에 선 저의 전형적인 관람 모습입니다. 하지만 강원진 작가의 고양이 그림을 봤을 때는 그냥 유쾌하고 시원한 느낌과 함께, 그 동안 묵혀 두었던 일을 해야 할 것 같이 “아! 나도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마음이 불쑥 일었습니다. 방금 든 그 느낌을 얘기했더니, 김 매니저는 “곡해될 수 있는 표현이다”며 조심시키는 말을 되돌려줍니다. 거침없고 솔직하게 그림을 그려내는 작가의 창작 스타일이 주는 “시원한 느낌”的 감동을 표현한 말이 “저 정도면 나도 그릴 수 있겠다”는 말로 오해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강원진 작가 아버님과의 대화에서도 굳이 그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오해되지 않고 오히려 작가의 작품 특성이 주는 특별한 감상이었음을 이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 작가의 아버님은 “우리나라 학교 미술 교실에서는 누가 더 잘 그렸는지를 평가하고 눈치 보느라 제 느낌대로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 누구나 작가가 되는 교실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나의 내면을 후련하게 표현해 보고 싶다는 마음을 억눌러 놓은 지가 꽤 되었으니, 이번 전시에서 <예술하는 시원함>을 느낀 순간이 저에게는 예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객에게 존경이든, 충격이든, 신선한 환기이든, 새로운 자극을 주고 그 경험 때문에 창작을 하게 이끄는 것이 바로 예술가의 역할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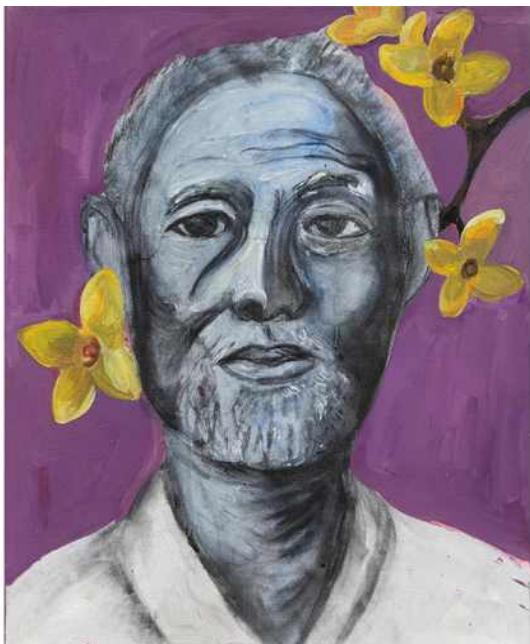
강원진 作 <아차>
(이미지 출처 : 전시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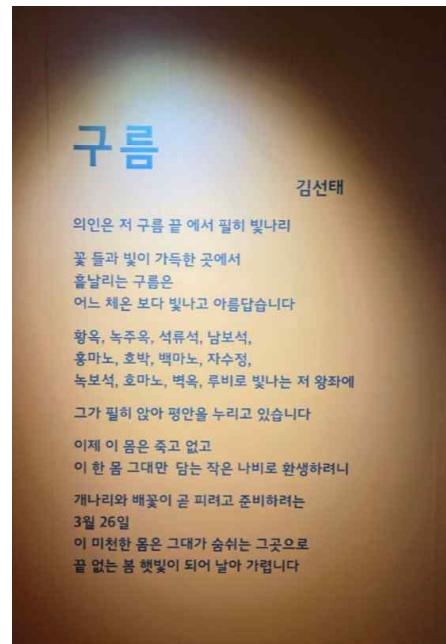
민소윤 作 <식물들의 좌충우돌 스토리>
(이미지 출처 : 전시 홈페이지)

2. 귀 기울이니 들린 이야기 _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창작과 생활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섹션의 민소윤 작가 작품들은 “엉뚱한 상상과 언어유희를 그림 소재로 사용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안부를 전하고 있다”고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섹션의 김선태 작가의 작품들은 독립 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시와 그림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작가가 마이크를 들고 열정적이고 긴 작품 설명을 끝낸 직후에, 제가 따로 조용히 작품 <구름>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는 다시 열변을 토하며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이제 그만 해”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계속된 그의 이야기는 “왜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의 동생 안공근 의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느냐”는 답답함을 지나, “서대문 형무소는 굿즈나 파는 곳이 아니다”는 단호한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글과 그림으로 독립유공자들에 대해 알리려고 했던 그의 노력이 별로 호응받지 못했던 저간의 상황들로 김 작가의 열변의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작가들의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비밀의 열쇠”를 구해서 그들이 세상을 보는 독특한 시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만 했던 저의 생각이 넓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발달장애예술가들의 작품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도 앞서 강원진 작가의 작품이 주는 “예술하는 시원함” 만큼이나 친절적이고 명료한데, 우리는 아직 그것에 귀 기울일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반성이 되었습니다.



김선태 作 <강우규>
(이미지 출처 : 전시 홈페이지)



김선태 作 <구름>
(이미지 출처 : 필자 촬영)

개막 행사가 끝나고 강원진 작가의 작품 앞에서 작가 아버님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작가의 작품 옆에 함께 전시된 작품들처럼 아버님이 목조각으로 고양이 형상을 만들면 작가가 채색하는 방식으로, 또 한 명의 작가로서 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원래 화공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퇴직하고는 동네 목수, 마을학교 교사로도 활동했답니다. 부모로서 직접 창작과 기획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사연이 발달장애 예술가의 창작 현실을 말해줍니다. “부모가 직접 기획자, 창작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장애 예술가의 특성 상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주다가) 나도 작가로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절대로 내가 주(主)가 되지 않게, 서로의 영역을 지키는 협업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그 동안의 사연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창작에 대한 그의 입장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강원진 작가가 고양이를 즐겨 그리게 된 사연을 예전에 했던 길고양이 집 만들기 프로젝트로부터 더듬어 얘기해줬습니다. “고양이 그리기 작업 이전부터 고양이와 연결된 삶이 이미 있었다. 그것이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된 것이다. 옆에서 제가 고양이 타령을 하니까 개가 고양이를 그린 것이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다. 자식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저건 좋은 것이구나 하며 배우고 따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울문화재단의 발달장애예술가 육성사업 <우리 시각>의 장점이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창작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이라면서도, 강 작가가 (제도화된 트랙 위에서) “너무 유명세를 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리기보다는 그저 지금처럼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그리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강원진 작가가 가장 하고 싶어 했던 일은 그림 그리기가 아니라 전기기술자 일이랍니다. “(자동차 운전처럼, 지식과 자격이 있어야 하기에)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들은 할 수 없고, 그림 그리기가 지금은 가장 즐겨하는 일이다. 그림을 배운 후 대학교 진학과 취업까지 하게 되었으니, 분명 그림 때문에 아이의 세계가 확장된 것이다. 그림 때문에 삶 전체가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그림으로 성공하는 것 보다는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제가 작가의 자유로운 표현에서 느꼈던 “시원함”도 발달장애 미술가에게만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예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자유로움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얘기해주었습니다. 장애를 넘어서는, 삶과 예술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강원진 작가가 아버지의 목공 작업 위에 채색한 협업 작품
(이미지 출처 : 필자 촬영)

3. 공유해야 할 상황 _ 장애예술의 현실

심규철 작가가 저에게 열정적으로 작품을 설명하고 있으니, 그의 부친이 다가와서 얘기를 거드십니다. “처음엔 아이에게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는 줄 몰랐었다.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니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우연히 그림 재능을 발견하고 공부를 시작했고, 이제 사회적기업에 취업도 했다. 작품을 게임 회사에서 구매해주기도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강원진 작가 아버님과의 대화에서도 들린 “1년 째 장애인 고용 일자리를 전전하다가...”라는 말이 좀 걸렸습니다.

장애인예술연구소의 “장애인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연구”(2024) 결과를 소개한 소셜임팩트뉴스에 따르면, “장애인예술인의 근무 형태는 주로 재택. 하루 평균 4시간 근무. 미술과 음악 등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110~180만 원의 월 급여. **고용형태는 1년 계약 후 연장 1회를 포함해 2년까지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대다수**([소셜임팩트뉴스, 2024.01.30.일자](#))입니다. ESG 경영 트렌드에 따라 장애예술인을 고용하기는 하지만, 출근해서 일하는 것까지는 부담되어 재택근무를 주로 시킨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마음을 내준 기업의 선의를 비판하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 2020년 시행)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5.2.20.)¹⁾ 결과 발표에서는 <문화예술 활동기회의 충분성>을 평균 <32.5점>으로 발표했는데, 실제로 <부족하다>고 답한 비율은 61.2%(부족한 편 36.8% + 매우 부족 24.4%)였습니다. 2021년 69.1%(부족한 편 40.8% + 매우 부족 28.2%)에 비해 조금 줄어 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출처 : 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2025.2월, 문화체육관광부)>

1) 2024.10.2 ~ 11.8, 1,309개 표본 방문면접조사

오세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극장운영부장(당시 공연장추진단장)은 "장애인은 정규적이거나 전문적인 예술을 교육받는 기회가 적거나 장애를 이해하는 교육전문가의 부족으로 재능을 잘 살린 예술가로 성장하기가 어렵다. 어렵사리 예술가가 되더라도 원활한 예술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오세형, 2023)²⁾고 현실적 어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문화적 삶이나 예술창작활동에서 차별을 겪지 않도록 규정한 법령은 헌법과 문화기본법부터 장애인 관련 개별 법령들까지,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하기에 모자라는 수준은 아닌 듯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장애인을 위한 참여의 기회와 배려는 법 조항 문구만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인권헌장>의 7조에서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반 분야의 정책과 교통, 교육, 문화 등 각종 시설에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필요와 상황이 반드시 감안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처럼, 다양한 장애 상황에 맞추는 세심함이 <특혜가 아닌 공정한 처우>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문화활동 및 창작활동 관련 법령들 (일부 발췌)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문화 · 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 · 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 · 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 · 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 ·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 · 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 · 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의 방향과 의의 (오세형, 예술 vol 6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3.5월)

4. 정책이 준비해야 할 것 – 선불리 일반화 하지 않는 제도화

마침 전시장을 찾은 백기영 미술평론가(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전시장운영부장)와 발달장애 예술가 작품의 독특함과 별도 예술 장르로서 제도화에 대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같은 미술 문외한에게 “시원함”을 주는 작품의 독특함을 제도화된 미술계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는 “예술창작 작업은 결국 사회화의 과정이다”고 말하며,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창작자로 성장하며 겪는 과정을 알려줬습니다. 기존 제도권 미술계에서는 실력보다는 제도화된 교육과정을 밟았는지 여부로 전문 작가냐 아마추어 작가냐를 구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는 예술적 역량이 발견된 후 발달장애예술가들이 전문 작가로서 기량 향상을 위해 교육받는 과정, 또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고 (보호자들이 대신하여)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독특함이 사라지기도 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1920년대 미술계에서 초현실주의가 등장했을 때, 초기의 소동을 거쳐 결국 새로운 예술 사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반면 100년이 지나 2021년 이미지 생성 AI <달리(DALL·E)>가 잠시 괴상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다가 곧 파라미터 조정을 거쳐 지금처럼 정확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로 발전, 정착했습니다. 둘 다 제도화와 사회화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궤적을 보여줍니다. 낯설고 독특함은 예술로 인정받을 때 그 안에 담은 이야기를 전하며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
<The Disintegration of the Persistence of memory>
(이미지 출처 : 위키피디아)

저는 “적절한 방향으로 제도화와 사회화를 도와주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며, 적절한 장애예술의 제도화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지를 고민해봅니다. 우선 장애 예술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장애예술 지원정책 마련의 출발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 이전에 예술계에서도 장애예술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각은 부족해 보입니다. 전시장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장애예술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평해주는 비평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장애예술을 소개할 때 의례히 첨가되는 장애 극복 서사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요즘 소위 스타 예술가들 중에 실제 예술 역량보다 배경 서사에 기대지 않는 사람이 드물지 않냐는 반박도 있었지만, 특히 장애 극복 서사가 작품 자체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덮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비장애인들 중심으로 형성된 기준 제도권 안으로 안착한 것을 성공으로 보는 시각 또한 장애 극복 서사에 강하게 투영됩니다. 반면 발달장애인들의 표현의 독특함을 그대로 이해해 주는 경우도 드물지만, 진심으로 그 독특함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접근은 예술 이외의 민감한 영역을 건드리게 되어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2024.6.15. 대학로에서 진행된 2024년 <우리 시각> 참여작가 선발 실기 심의 현장
(사진출처 : 서울문화재단)

발달장애 미술가 육성사업 <우리 시각>은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가 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임종룡)과 함께 재능 있는 발달장애 신진 미술가를 발굴해 예술가로서 예술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게 돋는 사업입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 10명은 지난 2024년 6월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에서 열린 실기 심의를 거쳐 선발되었고, 이후 6개월 간 창작 활동비 지원 외에, 5명의 전문가 멘토들(김동기, 김태협, 나오미, 노세환, 최윤정)로부터 1:1 멘토링 등을 지원 받았습니다. 보호자의 조력이 중요한 발달장애의 특성에

맞춰서, 전시회 개최, 작품 판매와 유통을 담당할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예술가가 되고 싶은 당신이 알아두면 좋을 상식”을 주제로 한 강연도 진행되었습니다.

김유진 서울장애인예술창작센터 매니저에게 작가 선정 기준을 물어보니 “독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문 작가로서 본격적인 창작활동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에 맞춰 창작자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그의 말과, “내가 주(主)가 되지 않는 협업”의 불가피함을 얘기한 강원진 작가 아버님의 말이 오버랩 됩니다. “요즘 전체 작업 과정을 다 혼자서 하는 작가가 몇이나 되나”며 반박하는 저의 말과 “Ai의 생성형 창작이 판치는 시대에 예술가의 생각과 의도가 가장 중요한 예술의 요소이지”라는 저의 평소 생각도, 두 사람의 말을 모두 수긍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하는 모순을 보여줍니다.

예술과 예술가의 개념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판에, 장애예술 정책 수립을 위한 적절한 개념 설정도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머문 장애예술기획전 개막 행사에서도, 사회의 일원으로 독립적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경우, 제도권 안에서 전문 예술가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우, 작가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 그리고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장애예술 씬에는 장애 유형별로 또 다른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장애예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섣불리 일반화하지 말자”고 강조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서로 다른 상황과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 행사와 작품 소개는 전시 홈페이지 참조 : <http://www.situationandstory.kr/>

※ 이슈페이퍼에 사용된 기사들과 보고서 원본은 <문화+정책 정보서비스> 텔레그램 채널에 수시로 게시됩니다. ► 채널 구독 링크 : <https://t.me/+phcLQTIMWII4Y2U1>

※ 이슈페이퍼 내용은 작성자의 견해일 뿐, 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sea@sfac.or.kr)

Vol. 2025-7월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상황과 이야기』

(서울장애인예술창작센터 장애예술기획전 “상황과 이야기” 리뷰)

발 행 일 : 2025년 7월 9일

발 행 인 : 송형종

발 행처 : 서울문화재단(www.sfac.or.kr)

기획·집필 : 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김해보 전문위원(sea@sfac.or.kr)

편집 :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디자인 :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서울문화재단 블로그
[문화+정책] 바로가기

문화예술 뉴스 스크랩
텔레그램 채널 바로가기

